



갈보리선교회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제44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순회전도 보고



제44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 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간: 2015년 1월4일(주일)~1월16일(금)
대상지역: 첫째주간-경기도(파주,평택,오산)지역
둘째주간-충청도(대전,홍성,서산)지역

***특별전도팀 구성**

- 총지휘:** 김승석목사(분당충만교회, 선교회장, 단장)
- 메시지 및 지도회원:** 김중남목사(충남파도교회, 이사), 김현철목사(분당충만교회, 총무), 김정은전도사(분당충만교회, 행정/위십간사), 윤정화(분당충만교회, 회계/위십간사), 주정림(분당충만교회, 서기), 류춘복(분당충만교회, 중국어간사), 원종석간사(분당충만교회, 기자재간사), 김아영(분당충만교회, 영어간사), 김혁(분당충만교회, 차량간사), 박지연(분당충만교회)
- 단원:** 원종석(분당충만교회, 엔지니어)외 22명

4일	①1사단신교대	11일	①육군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5일	①온세그린요양원 -노인복지시설(파주) ②25사단70연대3대대 9중대	12일	①성애원 -노인요양원(대전)
6일	①산호케어요양원 -노인복지시설(파주) ②3군지원사령부 91정비대대	13일	①선우행복마을 -치매센터(대전) ②국군대전병원
7일	①해군제2함대사령부 ②51사단169연대	14일	①에벤에셀요양원 -노인복지시설(대전) ②판암장로교회(대전) -홍성현목사사무
9일	①미소요양원 -노인복지시설(평택)	15일	①홍성정신요양원 ②32사단98연대
9일	①송탄실버랜드 -노인복지시설 ②51사단168연대3대대	16일	①서산실버빌요양원 -노인복지시설 ②32사단98연대1대대

후원&기도회원, 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2.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 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답지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3. 특별전도팀, 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학습교인이상)



*농협:017-12-077384
*국민은행:825-21-0082-437
*우리은행: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www.calvarymission.com /
네이버&다음에서 갈보리선교회로 검색)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을 보는 듯한

관암장로교회(대전)

장승희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찬양과 공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찬 찬양과 군무를 보며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을 보는 듯한 강한 영적 파워가 느껴졌습니다. 찬양과 함께 파워풀한 손동작이 무대가 작아 보일 만큼 크게 느껴지며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중간 중간 내레이션과 목사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까지 고뇌와 고통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모습, 채찍과 매 맞는 모습은 소름이 끼치도록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즉시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는 참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길 다시 한 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사단 70연대 3대대

일병 최현준

저는 밖에서 말만 기독교인이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찬양 팀에 들어가 찬송을 배우며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조금씩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 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처음 접해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춤이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것을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신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그날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내용을 잘 보여주시는 드라마를 보며 다시 한 번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선 섬길 줄 알아야 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이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법,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회개의 중요성,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9중대 실로암 교회의 찬양 팀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섬기며, 죄에 대해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관암장로교회(대전)

박춘자 권사

갈보리선교회의 찬양과 성극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Opening 첫무대는 마귀들과 대적하는 찬양의 모습이 씩씩하고, 힘차게 찬양과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로웠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회개가 있어야 함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갈보리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공연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힘내세요!!!

진심 깊은 아름다운 공연

32사단 98연대 1대대

상병 김진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갈보리선교회에서 이런 작은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해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비록 본인들의 실력이 전문가처럼 뛰어나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우리를 위해 보여준 공연은 열정적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으로 빚어낸 진심 깊은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목사님의 말씀 또한 이런 추운 겨울에 피로와 추위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들의 공연 또한 굉장히 따뜻하였다.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들과 보낸 시간은 분명 좋은 추억으로 내 마음에 깊이 남을 것 같다.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911정비중대

일병 김현성

대대의 교회를 온 지 이틀째이다. 오늘은 갈보리선교회에서 위문공연을 하였다. 기도가 끝나자 음악이 나오고 남성, 여성분들이 나와 춤과 노래를 불렀다. 손동작이 신기하면서 서로 딱딱 맞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부터라도 죄가 있으면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한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앞으로 꾸준히 교회 잘 다니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천사가 내려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25사단 70연대 3대대
일병 김서준

위십과 함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할 때 매우 은혜 받았습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꾸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은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을 잘 지키면 도달할 수 있고, 그 기준선에 도달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죄인 줄 알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다

판암장로교회(대전)
박재현 집사

전체적인 느낌은 파워풀하고 절도가 있으며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완전하신 신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며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회개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민감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다. 마지막에 우린 승리자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 또한 하게 되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국군대전병원
이병 황보진

오늘 드린 화요 예배에 갈보리선교회라는 곳에서 오셨다. 군대에 와서 이런 좋은 기회를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산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군생활 중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전역을 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믿음교회와 갈보리선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1사단 신병교육대대
일병 천준원

이번 위십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새삼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매우 뜻 깊은 주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제가 느낀 이 은혜를 여러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과 직업을

91정비대대 911중대
일병 전상훈

군생활에 지친 우리들을 위해 친히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언제 이런 노래를 듣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잘 지키면 복이 온다고 하였는데 성경에 적혀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과 직업을 얻어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믿음을 전파해 주신 갈보리선교회 목사님과 단원들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멘.



환한 얼굴로 미소를 끊임없이 지으시면서 찬양하는 모습

국군대전병원
병장 김선태

새해에 맞이하는 첫 화요 예배를 늦게 드리긴 했지만 귀와 눈이 즐거운 예배였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환한 얼굴로 미소를 끊임없이 지으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환한 미소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죄의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더더욱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과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설교였지만 임팩트 있는 설교였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한 곳을 바라보시는 그 자세가 매우 놀라웠고 인상적이었다

선우치매센터(대전)
윤예빈

천사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 위를 꽉 채우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찬무를 하시면서 환하고 밝은 미소로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도 박수로 화답하듯이 모두가 힘차게 박수로 표현을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녀 한 쌍의 그림 같은 포즈에서 빛이 나오듯 충만하여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깔끔한 의상과 팀원들의 울동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해서인지 우리 어르신들도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한 곳을 바라보시는 그 자세가 매우 놀라웠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간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보리선교회 찬양단을 관람하시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주시고 호응도 높아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앞을 향해 우리 어르신들이 집중하고 조용히 하시는 공연은 드물었는데 놀라게도 끝까지 시간을 채우시고 앉아 있으셔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록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갈보리선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보았습니다

에벤에셀요양원(대전)
김병호 원장

갈보리선교회의 고귀한 사역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우리 어르신들께도 찬양과 뮤지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전도팀원들의 표정 하나 하나에, 동작 하나 하나 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꽃피우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갈보리선교회를 위하여 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많은 열매 맺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까지 흘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성애원(대전)
김광식

스케일이 다른 공연준비와 공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단순한 공연이 아닌 스토리가 전개되는 공연을 선보이며 성애원 노인요양원 어르신들께 큰 행복을 선사하시며 참으로 감사했다. 특히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픔을 겪으시는 장면을 보시며 눈물까지 흘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진한 감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갈보리선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애노인요양원 모든 가족이 행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약한 나의 믿음과
등한시한 행동**

송탄실버랜드
김정근 요양보호사

모든 실버랜드 가족과 함께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여러 단원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보며 그동안 나약한 나의 믿음과 등한시한 행동들을 발견하며 깨달음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복음에 큰 감동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 마다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놀라게 한 장면!
감탄할 만한 장면!**

국군대전병원
상병 이봉준

멀리까지 오셔서 힘들게 준비한 공연을 잘 봤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장면도 많았고 감탄할 만한 장면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새겨두고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맙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을 보고

(단원)조민수

이번 둘째 주간에는 충청도 대전, 서산 지역을 돌아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은 정말 반응이 없게 만드는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아멘 소리도 적고 박수도 잘 쳐주지 않았다. 오늘 양로원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집회 내내 무표정에 겨우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에 김이 새려고 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며 끝까지 집회에 집중하며 기도를 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했는데 그 무덤덤해 보이시던 분들이 손을 꼭 잡고 짧게 “고맙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다 통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전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동안의 수고를 갚아주시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큰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절로 나왔다. 아직도 부족하고 어리숙한 ‘나’이지만 정말 내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단원)최수양

요양원의 집회가 끝나고 간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젊어서부터 큰 일을 하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단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느껴지며 보여진 것 같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주의 일에 열정이 없던 자들, 담대함이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자들 등등이 우리의 표정, 움직임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사실 첫째 주 집회가 끝나갈 시점인 지금 나는 평소 때와 달리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영혼구원이라는 큰 일을 하면서 잠깐 피곤하고 지친다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귀한 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반성이 되며 회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곳에 모인 어르신들부터 봉사자까지 큰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였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그동안 누렸던 쾌락과 즐거움들이 다 헛되다고 하였다. 친구들은 더 승진하라, 더 많은 곳을 여행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부귀영화이다. 이렇게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일에 보잘 것 없는 나를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는 자녀가 되어 어느 누구보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심

(메시지 위원)박지연

경기도와 충청도를 대상으로 순회전도를 하였다. 대상지역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하셨다. 이번 전도가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집회 스케줄이 조금씩 조정되기도 하면서 각 기관과 군부대와 교회를 찾아가게 하셨다. 가보면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 특히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보게 되면서 감사드렸다. 심지어 전도자가 목을 곳, 먹을 음식,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리고 더 귀히 쓰실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함을 느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중국어 간사)류춘복

이번 순회전도는 나에게 남다른 시간이었다. 직장으로 인해 절반만 참여했는데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함께 전도에 임했던 시간이나 큰 은혜와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던 중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집회 중에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었다. 또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등을 찬양하며 내가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하며 지내왔던 아버지께 대한 내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마땅함을 더 깊이 깨달았다. 아주 조금은 속상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 해주시리라는 확신도 주셨다. 모든 집회에 감격가운데 임했고 그만큼 영혼들을 향한 기도도 열심히 하였다.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열심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고 들은 모두가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되기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기도와 복음의 능력을 이토록 매일같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부엔지니어)이성하

순회전도에서 하루에 집회를 한 번 하는 날은 흔치 않은데 오늘은 낮집회 한 번만 하게 되었다. 아침 기도회 시간에 ‘오늘은 한 번 밖에 집회를 못하니 실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다. 실제로도 두 번에 쓸 정성을 한 번에 다 쏟겠다는 다짐을 하고 출발했다. 결과는 기도한 대로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어르신들의 영혼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국 그 곳의 어르신들과 임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녹게 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것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흔치 않을 것인데 기도과 복음의 능력을 이토록 매일같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포병여단 355대대

일병 김평화

자대 전입 후 처음으로 위문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찬송과 연극, 말씀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찬송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찬양과 울동을 하시던 선교단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선교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문득 주일날 예배시간에 제 표정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떠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참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한동안 우울한 생각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교회원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웃지 못했던 제 얼굴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과 감사,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시간을 통하여 우리 부대 장병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은혜에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대 많은 장병들이 말씀에 대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큰 기도제목인 것 같습니다.



수도군단1175공병단

일병 김건

낮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전 날 잠을 많이 자지 못했던 터라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저녁6시30분에 선교예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은혜로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많은 고민 끝에 저녁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리 '프로패셔널' 하다고 귀뜸해 주셨지만 사실 별 기대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시간 내내 각종 위십, 드라마 등에 폭 빠져들었고, 더불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구원이란 무엇인가?' 과연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예배를 통해 저의 믿음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주님께 가까워진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1포병여단 898대대

일병 조영광

이번 갈보리선교단의 위문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단단해 진 것 같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마임과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는 순서였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하신 고난과 나를 향한 사랑에 너무 무감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마음 깊이 새겨두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물댄동산요양원
지강숙 사회복지사

울동과 함께 공연을 보여 주셔서 어르신들이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간사님의 말씀에서 어르신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신다고 하실 때 어르신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답을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간사님의 말씀 중 자손에게까지 죄가 넘어간다는 말씀에 어르신들이 죄를 짓지 않고 남은 날을 살아 갈꺼라고 답을 하시며 호응을 하신 것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 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에 모두 큰 소리로 아멘하시는 모습에 참 감동이었습니다. 드라마의 부분 중에 예수님이 고통 받으신 후 부활하시는 모습에서 어르신들 공연을 보시는 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단58포병대대

일병 광 산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불행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내가 불행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는데 제 멋대로 '이건 죄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불행히 살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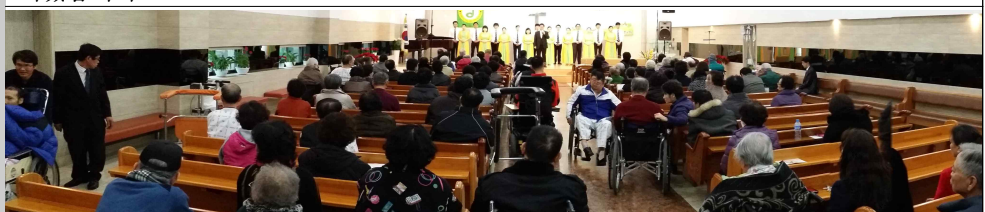
인천외국인선교회
크리스천 전도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온 성도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킷 드라마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제일 심한 문제인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갈보리선교회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9사단 30연대 2대대

병장 조항주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군인이니까'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겠지?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짧은 기도 안해도 되겠지?' 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세우고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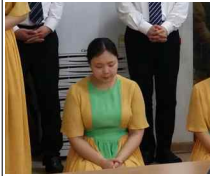


News 회원소식

유치장전도 감상문

입단

- 김지은(19세,분당충만교회)자매가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정식 입단**하여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납

임중훈(분당충만교회)성도가 **믹서기**를 헌납하여 매집회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김 혁간사(차량,메시지)와 김초희간사(드라마)의 결혼식이 2월14일(토)에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자가 될 수 있음

(단원)최수진

처음 유치장 전도를 했을 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곳에 오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전도를 하면서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어 확실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된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던 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의 법도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신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그 죄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자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전하고 싶다.

김승석목사 요한계시록 강해설교집(전3권)



Teach
Rebuke
Correct
Train

성경본문이 주는 **교훈(지혜)**
오늘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바르게 함**
영육의 성장과 훈련을 위한 **의로 교육하는 말씀**

본 책은 전체 144편으로 구성하였고, 각 편은 대, 중, 소 제목을 명기하고, 해당 본문을 각각 수록하여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고도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가르치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 편을 그대로 사용하며 예배 시 설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성경공부반이나 그룹모임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매일 한 편씩 읽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나 그룹모임시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화면에 띄우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별도로 영상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상자료는 별도로 구매문의 바람)

■ 구입방법 ■

1. **직접구매** 전화, 홈페이지, 직접방문으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구입문의 전화 T.031)715-0191, T.031)713-0807 시온출판사 홈페이지 www.zionbook.co.kr
2. **서점에서 구매**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요단인터넷서점, 두란노, 생명의말씀사

사역소기

국내사역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E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스가 어우러지며 천지창조, 예수님의 일생,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 everything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 새 교우나 연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 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교회찬양전도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전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1월과 8월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팀들이 있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에 사역합니다.

해외사역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전도사역으로 현지교회, 학교, 교도소, 마을광장, 공연장 등에서 전도집회를 합니다.

선교사지원사역

제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역입니다.

교육훈련사역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에 본부교회인 분당 충만교회에 모여 영성훈련과 프로그램 연습을 합니다.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4시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합니다.

목장모임

매주 1회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훈련

1월과 8월에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 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2014년 5월 ~ 2015년 1월

5/25	한국외국인선교회	8/13	포항로템요양병원	12/21	6군단16화학대대
6/1	성남엘림실버빌(노인복지시설)		해병대1사단3연대	12/28	아가페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
6/8	수원성화의집(노인복지시설)	8/14	대구예수마노노인요양원	1/4	1사단신교대
6/15	17사단101연대1대대		대구성림노인요양원	1/5	파주온세그린요양원(노인복지시설)
6/22	송파임마누엘의집 (장애인복지시설)	8/15	대구신일양로원		25사단70연대3대대9중대
6/29	아가페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		50사단120연대3대대	1/6	파주산호케어요양원(노인복지시설)
7/6	1사단신병교육대	8/24	용인어르신사랑요양센터		91정비대대
7/13	용인풍산요양원(노인복지시설)	9/7	한국외국인선교회	1/7	해군평택2함대사령부
7/20	하남효도노인전문요양원	9/14	1사단58포병대대		51사단169연대
8/3	21사단96포병대대	9/21	17사단신교대	1/8	평택미소요양원(노인복지시설)
8/4	양주소규모노인요양원	9/28	2기갑여단6전차대대	1/9	송탄실버랜드(노인복지시설)
	2사단62포병대대	10/5	광주태전소망요양원		51사단168연대3대대
8/5	양구노인전문요양원	10/9	양주물댄동산	1/11	육군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3군단833포병대대	10/12	1포병여단898대대	1/12	대전성애노인요양원
8/6	3포병여단922대대	10/19	6포병여단878대대	1/13	대전선우행복마을(차매센터)
8/7	인제에향원(노인복지시설)	10/26	9사단30연대		국군대전병원
	2사단633대대	11/2	수도군단1175공병단	1/14	대전에벤에셀요양원(노인복지시설)
8/8	인제실버홈노인요양원	11/9	1포병여단355대대	1/15	대전판암장로교회
	2사단63대대	11/16	한국보훈병원		홍성정신요양원
8/10	해병대1사단7연대	11/23	17사단507여단2대대	1/16	32사단98연대
8/11	50사단121연대1대대	11/30	이천하나원(노인복지시설)		서산실버빌요양원
8/12	영덕아산병원(노인요양병원)	12/7	57사단221연대	1/25	32사단98연대1대대
	50사단121연대2대대	12/14	용인풍산요양원(노인복지시설)		하남연약사랑나눔요양원 (노인복지시설)
			25사단70연대1대대		